믿음의 사람들 II.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내면의 모습

[로마서 7: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 정체성

(1)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정체성'의 문제이다.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시작한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명확하다. 분명하다. 다른 어떤 설명이 없다. 창조는'증명'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다. 창조는 선포이다. 그래서 창조는'믿음'의 영역에 속해있다.

(2)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은'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다. 그 단서가'이미지'라는 단어이다. 이미지는 어떤 것이 비추어진 상태이다. 정체성이란 무엇인가를 비추는 것이다. 비추어 질 때 이미지가 된다.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비추어진 존재이다. 정체성은'거울'과 같은 것이다. 인간이 창조된 이유는'하나님'을 비추어 내기위해 창조 되었다.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거울이 바로 인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비추어 낸다.

(3) 타락한 인간 - 정체성이 깨어짐.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체성이 파괴된 것이다. 파괴된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 영역에 속한 것 이외의 것들을 비추어 낸다. 두려움, 아픔, 고통, 등이 비추어 진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다.

(4) 믿음이란?
믿음이란'정체성'의 확립문제이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적 영역의 문제이다. 성경을 보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는다. 그래서 두려움, 고통,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하나님'을 비추기 위해 나아간다.'바실레아 슐링크'는'기도 할 기분이 나지 않아도'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통 우리는 반대로 행한다. 마음이 슬플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원수 마귀의 공격목표이다. 원수 마귀는 최악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기도가 유일한 도움인 것을 알고 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슬픈 마음과 안팎의 역경 상황 전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원수의 음성을 듣는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주께서 주시는 도전에 유념하라. 기도할 기분이 나지 않아도 기도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순간 기도는 당신에게 힘을 주고 당신을 도와주어 고난은 실제로 특별한 복을 가져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고난은 당신에게 더욱 기도하게 하고 이는 또한 당신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 주어 이 안에서 최상의 기쁨을 갖게 한다."

2. 우리 내면안에 있는 두 종류의 거울 - 바울의 고민

(1)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은 자아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로마서 7:15]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울은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한다. 연약한 자아란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은 자아를 말한다. 그래서 '통제'되지 않는다.'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라고 고백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다.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2) 바울의 갈등 - 두 가지 자아 정체성.

[로마서 7:18-24]
18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19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20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21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22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24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바울은 18절에 '자신의 내면안에 선한 것이 아닌 다른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 라고 고백한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분명히 알고있고, 그로인한 갈등은 살아있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믿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신과, 그렇지 않고 내 방법, 육의 방법대로 하는 자아가 내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나의 내면의 구조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로마서 7장은 하나님의 형상된 자아와 고통으로 점철된 육의 자아와의 다툼이 나온다. 인간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이다. 한 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한 법은 죄를 원하며 그로 인해 죄의 법으로 묶여있는 다른 자아를 보았다.

바울은 이 풀리지 않는 싸움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데 답은 '사망의 몸'이었다. 어떤 답도 찾을수 없었다. 즉,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자아는 하나님의 속성 (기쁨, 빛, 영광, 부유함, 풍성함, 진실함, 신실함, 성실, 자비, 긍휼, 인자 등) 을 비추어 낸다. 그 때 인간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된 자신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육체의 법 (갈라디아서 5장), 죄의 법을 비추어 내는 다른 자아가 있다는 것이다. 그가 비추어낸 육의 열매는 고통, 아픔, 상처, 두려움, 의심, 비난, 정죄, 등일 것이다. 이 분쟁에 대한 바울의 답은 무엇인가? 자신 스스로는 찾을 수 없었지만 '성령의 법, 예수님' 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3) 율법의 거울

[로마서 7:7]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 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의 거울은 있는 그대로 인간의 모습을 비추어 낸다. 살인자는 살인자로, 강간범은 강간으로, 탐욕은 탐욕으로 비추어 낸다. 이와 반대로 선한 모습은 선한 모습 그대로를 비추어 내는 것이 율법의 거울이다. 바울은 율법의 거울 앞에서 괴로워 한 것이다. 선한 자신의 모습을 비추일 때는 좋은 것 같으나,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 질 때 그는 괴로웠다. 율법의 거울의 기능이 있는 것이다. 내 자아가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거울이다.

(4) 예수님의 거울 (은혜의 거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다. (내가 온전한 것 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완성된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시며 그 속성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말씀 - 즉 언약, 율법의 완성 - 을 이루셨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 되었다. 이 세상의 어떤 모습도 예수님의 거울에 비추이면 온전히 회복된 자신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율법의 거울이 요구하는 인간의 모든 저주와 죄악의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울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비추어져있다.

3. 믿음이란 무엇인가?

(1) 은혜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고 있는 자

예수님의 사랑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낸 사람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다. 이 사람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 좌절의 상황을 자신의 거울에 비추지 않는다. 누구에게 믿음이 생기는가? 믿음은 존재의 영역에 속해 있다. 온전한 마음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다. 바로 그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은 회복과 기쁨, 아름다움으로 비추어 진다.

이것이 믿음의 마음이며, 이 땅에 실제로 비추어 진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은혜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야 한다. 내면에 있는 두려움, 고통, 의심에 속해 있기를 즐겨하는 의심의 고아, 노예와 같은 자아에게 진리를 비추어 내야한다.

(2) 다시 옛 모습을 비추고 싶을 때, 단호하게 그 모습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다.

의심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고통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두려움의 감옥으로 다시 갇히기 시작할 때, 단호하게 그 생각을 단절하고 돌이켜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에 자신을 비추어 빛이 그 내면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바로 그 때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소망의 마음이 위로부터 주어진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내면에 온전한 은혜의 거울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절망, 아픔, 두려움에 있던 자들을 실제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행할 수 있었다.

(3)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 성품과 교제하라.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 앞에 서야한다. 의심많고, 두려움 많고, 연약했던 자아를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해야 한다. 날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때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4) 실천

-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갱신하여 서 있는 것이다.
- 육의 생각, 옛 생각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 기도와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습관고리의 탈피)
- 내면의 어두움을 빛 앞에 드러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믿음은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노출시키는 것이다.